

##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

현 경 자

(서강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와 그 역할을 밝히기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75세 미만의 기혼자 48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인들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해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 예측대로, 전체집단의 자료에서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에 의해 중재되었으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그러한 효과는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감에 의해 중재되었다. 또한,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상반되었으며,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은 심리적 안정을 통한 간접효과를 제외하고 전체집단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경로모형의 부합도도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남녀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나 간접효과들 간에 성차를 보여, 결혼만족에 있어 자기관의 역할이 남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임상사회사업적 함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결혼만족, 자아, 기혼남녀,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관계의 안녕, 심리적 안정

### 1. 서론

결혼만족은 결혼의 안정 및 해체 방지에 기여하는 주요인으로 기혼남녀와 그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보호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해 느끼는 만족은 기혼남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B00159).

으로 이바지하며(Ryff & Singer, 1998), 자녀에 대한 기혼여성의 긍정적 감정표현을 촉진하여 자녀들 간의 우애와 정서발달을 돕고(Stocker, Ahmed, and Stall, 1997), 결혼생활에 만족한 부부들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외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보고되고 있다(Epstein et al., 1993). 이러한 연구들은 이혼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결혼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결혼만족에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현대 한국인의 이혼은 외부적 요인보다 기혼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정현숙, 1997), 이혼의 주된 사유가 '성격차이'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2004), 기혼남녀의 개인적 특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특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자의 사회문화적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기혼남녀와 그 가족의 안녕감 증진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사고 성향이나 행동 동기 및 감정 표현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며 해석하는가에 의해 많은 경우 좌우된다(Markus and Kitayama, 1991). 따라서 인간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기관'(self-view) 또는 '자기해석'(self-construal)은 기혼남녀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혼생활의 주관적 경험과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lements et al., 1997). 이제까지 자기해석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구 이론은 성역할의 사회화로 인해 남녀에게 각각 발달된 독립지향성과 관계지향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Thompson and Walker, 1989), 자기관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과 남녀가 갖고 있는 자기관의 다양성을 간과해 왔다. 근래의 자기해석 연구들에 따르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독립적 자기관이 발달하고,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또는 관계적 자기관이 양성되지만,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은 개인 내에 공존하고 있어(Singelis, 1994; Tanaka, 2000), 기혼남녀의 자기관이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에 접하기 쉬운 도시 한국인들 사이에 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함을 발견한 현(Hyun, 1995)의 연구는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 한국인들의 자기인식과 해석이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결혼만족 연구에서 간과해 온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공존에 대한 고려와 이들의 개별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규명이 현대 한국 기혼자들의 결혼만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만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혼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 즉,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이 결혼만족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으나(김영희, 1999; Caughlin, Huston, and Houts, 2000; Fitzpatrick, 1988), 자기관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결혼만족에 어떻게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이제까지 개인의 자아성향에 근거하여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서구의 이론이나 연구들은 자기 해석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간과한 채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Thompson and Walker, 1989; Veroff, Douvan, and Kulka, 1981)이나 성역할 태도(Cooper, Chassin, and Zeiss, 1985; Stevens, Kiger, and Riley, 2001) 또는 성역할 정체감(Hiller and Philliber, 1989)에 초점을 맞추어,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호의존성이나 관계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봐도 성역할 태도나 성역할 정체감과 결혼만

족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수적으로 우세하며(예: 윤경자, 1997; 이미숙, 1997; 이영미·김정희, 1997; 최규련, 1984), 이들은 성역할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의 여성성과 남성성 또는 전통성과 비전통성(혹은 평등성)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을 구분하고(예: 이동원·최선희, 1997;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대비되는 개인의 독립이나 권리에 대한 추구와 개인의 의무나 상호의존에 대한 존중이 결혼만족에 어떻게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밝히는 데 한계를 보인다. 또한, 기혼자의 자기개념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도 자기관의 역할보다는 자기개념의 확인 및 자기효능감(Schafer, Wickrama, and Keith, 1996), 자기존중감(Sacco and Phares, 2001), 자아분화수준(조은경·정혜정, 2002), 자아의 수용 및 동일성 등(조성욱·신효식, 1987)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인들의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자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어떻게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조사하고, 이 두 자기관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만족에 있어 자기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첫 번째 시도로 자기관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결혼만족의 지식기반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안정과 해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혼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자기(self) 및 자기관의 정의와 유형

국내학자들에 의해 ‘자기’ 또는 ‘자아’로 해석되어지는 셀프(self)는 인간의 특정 부분이나 두뇌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거나 숙고되는 개인의 모든 것(a whole be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는 개인의 신체적, 물질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표상(representation)들로 구성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구조화되고 변화하는 까닭에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 정의된다(Epstein, 1973). 자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보여주는 ‘자기관(self-view)’ 또는 ‘자기해석(self-construal)’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기개념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공유되어 온 의미체계와 생활방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므로 역사 및 사회문화적으로 조성된 환경의 산물로 간주된다(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1998). 따라서 개인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기관은 문화나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에 따라 독립적 성향이 우세하거나 상호의존적 성향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는 데, 그러한 차이는 인간의 독립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조금호,

2003; Cross and Madson, 1997; Fiske et al., 1998).

예를 들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인간을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 보는 개인중심적 인간관이 우세하여,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촉진하는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의 실천을 통해 독립적 자기관이 양성되도록 한다(Markus and Kitayama, 1991). 독립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두며, 타인과의 경계를 유지하고 상황과 분리된 자기 고유의 내적 특성(예: 능력, 자질, 성격)과 내적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의해 자기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동아시아의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우세하여, 집단 및 사회관계의 화합에 유용한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의 실천을 통해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발달시킨다(Fiske et al., 1998).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 연계된 존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두며, 타인과의 결속을 유지하고, 상황의존적인 자기의 특성, 즉, 사회적 관계, 지위, 역할, 타인의 평가, 소속집단 등에 의해 자신을 지각하고 표현하는 성향을 보인다(조공호, 2003; Fiske et al., 1998). 성인 한국인들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있어 성차가 없음이 발견되고 있어(김지영·김명소, 2003), 유교적 집단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기혼남녀들에게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양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한 사회 내에서도 개인의 독립성이나 관계성에 근거한 자기해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Gilligan, 1982). 전통적으로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은 남성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장려하고, 여성에게 가사와 자녀 양육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관장하는 표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장려한다(Eagly, 1987; Maccoby, 1990). 그로 인해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와 타인을 돌보는 능력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그의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존재로 사회화되는 반면, 남성은 독립적인 자기 특성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고, 목적달성과 성취를 지향하는 존재로 사회화된다(Gilligan, 1982). 결과적으로,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남성에게 독립적 자기관과 여성에게 관계적 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발달시키며, 그러한 자기관의 차이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자기관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Cross and Madson, 1997). 하지만, 현대사회는 남녀 모두에게 양성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장려하는 경향이 높아(이영미·김정희, 1997), 한국의 기혼여성들에게 독립성을 장려하는 사회 경험과 도구적 역할이 주어질 경우 독립적 자기관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학자들에 의해 자기관의 문화차나 성차가 강조되고 있지만, 근래에 미국(Singelis, 1994)과 한국(Hyun, 1995), 일본(Tanaka, 2000), 인도(Misra and Giri, 1995)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실시된 자기해석 연구들은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개인 내에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남녀의 자기관이 이원적이며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자기'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발달하고 변화하는 역동성을 갖고 있어,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를 겪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자기관의 개인차가 크며, 서구식 사고에 대한 이해와 접촉 정도가 높은 도시 한국인일수록 독립적 자기관이 높음이 발견되고 있다(Hyun,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기혼남녀들의 자기관이 단순히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이나 문화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대 한국 기혼남녀들의 그러한 자기관이 결혼만족의 개인차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학자들에 의하면, 자아(self)는 인간의 행동이나 세상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증재하는 거점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한다(Baumeister, 1998; Markus and Kitayama, 1991). 예컨대, 자기개념(self-concept)은 끊임없이 받는 다양한 자극 중 무엇을 지각하여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각자의 삶에 의미와 일관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한다 (Markus and Wulf, 1987). 따라서 결혼만족을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느낌, 신념, 인상 등이 반영된 긍정적 감정 또는 태도로 본다면,<sup>1)</sup> 자기관은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혼만족의 정도나 질을 좌우할 수 있다. 더욱이, 결혼만족은 결혼에 대해 개인이 가졌던 기대와 그것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데(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Veroff et al., 1981), 그러한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가치관, 준거틀, 목적 및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Campbell et al., 1976; Diener and Suh, 2000),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자기관의 유형에 의해서도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마커스와 기타야마(Markus and Kitayama, 1991)는 독립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사람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사람의 인지과정, 행동의 동기 및 감정적 경험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남을 주장하여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결혼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해준다. 예를 들면, 독립적 자기해석은 개인의 주의(attention)와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자신의 생각, 느낌, 독특한 자질들을 발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양성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개인의 주의와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려는 동기를 양성한다.<sup>2)</sup>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기혼남녀가 어떤 자기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심을 두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생활의 측면과 결혼만족의 근원이 달라질 수 있어, 자기관은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일하게 기혼여성의 자율성 및 관

1) 결혼만족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은 만족의 근원을 규정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로치 등(Roach et al., 1981)은 결혼만족을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호감도로 정의하여, 이를 통해 부부 중심의 서구적 결혼관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호킨스(Hawkins, 1968)는 결혼만족을 결혼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험되는 행복, 만족, 기쁨과 같은 배우자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정의는 호킨스(1968)처럼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정의의 필요성이 정현숙(1997)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2) 감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립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감정—즉, 자랑, 긍지, 분노 등을 좀더 빈번히 그리고 강하게 느끼게 되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감정—즉, 수치심, 동정심, 이해심 등을 좀더 빈번히 그리고 강하게 느끼게 된다.

계성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조사한 국내 연구(홍숙선·조성호, 2003)를 보면, 관계지향적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자율지향적 여성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이 보고된다. 이 연구는 관계지향과 자율지향을 일차원의 양극으로 개념화한 한계점을 보이나, 기혼여성의 그러한 성향이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이 외에 자기관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 및 정신건강에 기여함이 보고되고 있어, 기혼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반영된 결혼만족에 있어서도 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과 홍콩의 대학생을 조사한 관과 본드 등(Kwan, Bond, and Singelis, 1997)에 의하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자존감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유지에 각각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우울 증세는 적어(Hyun, 2001), 개인의 자기해석과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자기해석의 일치가 심리적 안녕에 중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관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직접 또는 간접 경로를 통해 기여하며, 그러한 경로는 자기관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차이가 남을 보여주어, 기혼자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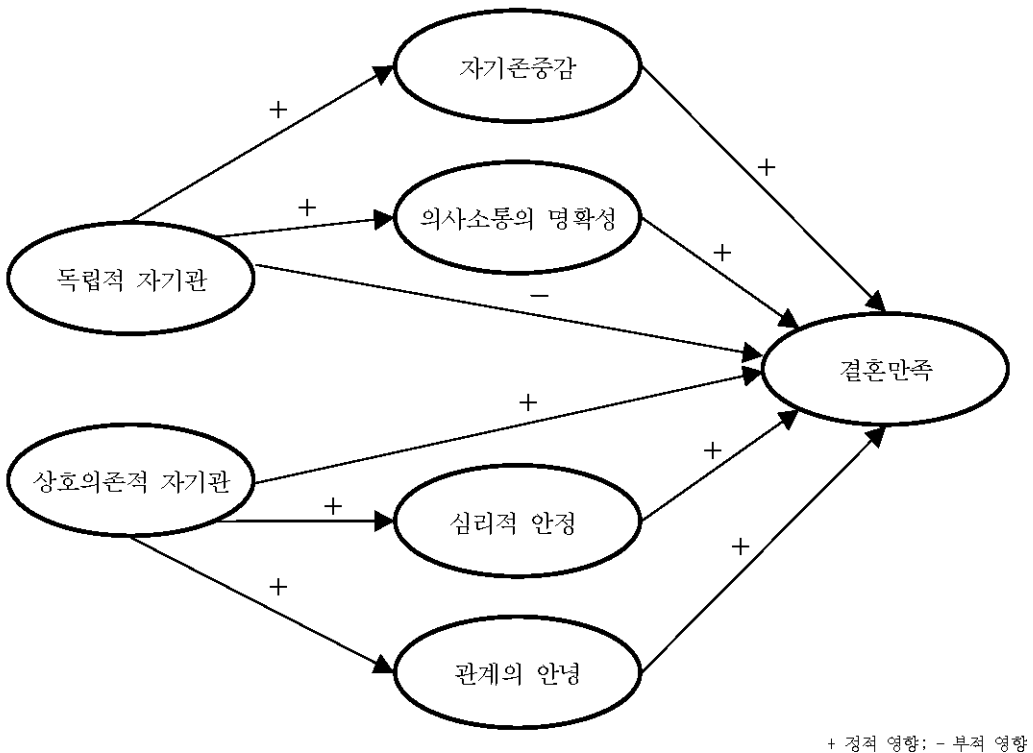
#### (1)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관련된 경로

위에서 논의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성향과 기능을 고려하면, 각각의 자기관은 결혼생활 및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에 기여하거나 장애가 될 수 있다. 우선, 결혼만족에 있어 자기관의 영향력이 중재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개인의 자기관 중 독립적 측면을 구성하는 주요인은 자율성으로 이는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양성하며(Deci and Ryan, 1995), 독립적 자기해석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 생각, 느낌 등을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과 견해를 솔직히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기능을 한다(Markus and Kitayama, 1991). 실제로 독립적 자기관은 성별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자기존중감의 주 예측요인으로 발견되며(Heine et al., 1999 참조), 자존감이 높은 기혼자는 자신의 역할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결혼만족도가 높음이 보고되고 있다(Lippes, 1999). 또한, 가족학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기능적임을 지적하는데(Epstein et al., 1993),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오경희, 1997). 따라서 독립적 자기관은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자기존중감을 양성하고, 만족한 부부관계를 위해 필요한 명확한 의사소통(이영호·이정은, 2000)을 도모함으로써 결혼만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자기관의 상호의존적 측면을 구성하는 주요인은 관계지향성으로 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양성하고(Fiske et al., 1998),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자기 조절을 격려하는 기능을 한다(Markus and Kitayama, 1991). 관계적 자기정체감이 높은 기혼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고(Acittelli, Rogers, and Knee, 1999), 타인에 민감하고 지지적인 성향은 부부관계에서 상호이해와 유대감을 도모하여 결혼의 행복도를 높임이 지적된다(이미숙, 1997). 그러므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배우자와 자식 및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도모하여 관계적 안녕감을 양성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지지적인 상호교류를 끌어내 심리적 안정감을

촉진함으로써(Triandis, 1995) 결혼만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결혼만족을 결정짓는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는 자기관의 종류에 따라 상반되리라 본다. 예컨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관계와 애정을 가장 중시하는 서구와 달리 확대가족 및 원가족과 관련된 인간관계와 도리를 중시하므로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독립적 자기관은 사적 자기의 개념을 촉진하여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부여하고(조공호, 2003), 자율성의 행사와 자유에 대한 욕구를 양성하므로, 독립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한국식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쉬워 결혼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sup>3)</sup>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관계적 자기의 개념을 촉진하여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부여하고 관계지향적 욕구를 양성하므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할수록 한국식 결혼생활에 대해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쉬워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

3) 독립적 자기관은 개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서 기능하고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요소이나 그러한 유형의 자기관이 문화적으로 격려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Hyun, 2001), 독립적 자기관이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상반될 수 있다고 본다.

## (2)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관련된 경로와 성차

이제까지 결혼만족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것이 성차로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여성보다 높게 보고되어 왔다(현경자·김연수, 2002 참조). 따라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립적 자기관은 성별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자기존중감의 주 예측요인으로 발견되고 있어, 자기관이 매개변인들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가 남녀 모두에게서 유사하리라는 것을 가정해볼 수 있지만,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성차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결혼생활에서 보다 많은 제약과 희생을 요구받는 기혼여성들 사이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부적 관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조되는 유교문화권에서도 남성들은 성역할의 사회화를 통해 독립적 자기의 발달을 격려 받으며, 그러한 자기성향의 발휘가 결혼생활에서도 기대되므로, 남성의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여성들에 비해 미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3) 연구개요 및 가설

근래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자기 인식이나 해석이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있으며(Hyun, 1995), 기혼남녀의 사고성향이나 행동 및 감정적 경험이 그러한 자기관에 의해 많은 경우 좌우되므로, 본 연구는 기혼자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생활 및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에 기여하거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정을 검증하였다. 첫째,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도모하여 간접적으로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하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을 저해한다. 둘째,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감을 도모하는 한편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유사한 점이 많으리라 보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 결혼만족의 성차를 고려하여 자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탐색하였다. 이제까지 국내외의 결혼만족 연구에서 유교문화권에서 강조되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역할과 남녀가 갖고 있는 자기관의 이원성이 간과되어 왔으므로, 이 연구는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내재한 문화적 특성을 밝혀 결혼만족의 지식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결혼안정을 도모하고 부부와 그 가족의 안녕감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3. 연구방법

#### 1) 표집 및 조사대상

##### (1) 표집 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세부터 75세 미만의 기혼남녀 48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집은 남녀의 성비 및 연령 집단의 고른 분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확률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서울시에 포함된 25개 구의 경제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지역에서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구 1개, '중'에 속하는 구 1개, '하'에 속하는 구 1개 등 총 12개 구를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이 특정 지역이나 편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택된 각 구에서 2개의 동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원이 임의로 지역을 선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끝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의 인구수를 토대로 선택된 각 구에 거주하는 기혼남녀의 비율을 파악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 구별 조사대상의 수를 할당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8월 4일부터 2003년 10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전문사회조사기관을 통해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노년층은 조사기관에 의해 표본 확보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사회복지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총 9명이 자료수집에 참여하였다. 조사기관을 통해 자료수집에 참여한 조사원은 모두 18명으로 30대 이상의 기혼여성이었으며, 자료수집 전에 조사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sup>4)</sup>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되 조사 전에 설문 문항 별 응답 요령을 안내해주고, 응답을 완료하면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 그 자리에서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면접형식으로 설문문항을 읽어주고 조사자가 응답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후에는 조사원들에 의해 선정된 구와 동에서 실제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쳤다.

4) 예를 들면, 응답자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식사시간을 피해서 방문할 것, 조사취지와 함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정직하게 알려주어 협조를 구함으로써 중간탈락률을 낮출 것 등이 전달되었다. 특히, 선택된 동에서 응답자를 선정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 주택단지에서는 최대 3인까지 수집을 허락하였고, 단지 내 1개 동에서는 1명만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 사무실(회사), 교회 혹은 특정단체 등에서는 조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노년층 표집의 경우,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택된 구와 동에 자리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를 찾는 방법도 허용하였다.

### (3) 조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처음 표집의 목적대로 남녀의 성비와 연령 집단에서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10년을 단위로 연령 집단을 구분했을 때 만 25세부터 64세까지는 각각 100명씩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응답자의 수가 89명으로 다소 줄었다.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이들의 비율이 39.5%(193명)로 가장 많았다. 대학 중퇴나 대졸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은 36.2%(177명)였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도 7%(34명)를 차지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43.2%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대학교육을 받았음을 뜻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경제수준을 엿볼 수 있는 가족의 연간소득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4%(232명)가 2,4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의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을 보고하였으며, 연간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18.4%(90명)였다. 연간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1.9%(151명)였으며, 이중 가족 전체의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저소득층의 비율은 8.8%(49명)이었다.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초혼(93%)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재혼인 응답자의 비율은 1.6%(8명),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인 경우는 2%(10명)로 미미했다. 응답자들의 결혼기간은 1년 미만에서 60년(1명)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였다.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응답자의 비율은 18.6%(91명)인 반면 31년 이상 되는 장기결혼생활자는 28.6%(140명)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51.1%)가 6년 이상 30년 이하의 결혼기간에 해당되었다.

## 2) 측정<sup>5)</sup>

###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Kansas 결혼만족척도(Schumm et al., 198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가치중립적이고 일반적인 문항으로 결혼만족을 측정하나, 다른 결혼만족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여 척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정현숙, 1997). 응답자가 결혼생활,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각각 측정 한 후 이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결혼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항목은 '1. 전적으로 불만족'부터 '7. 전적으로 만족'까지 7점 척도가 주어져,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우수하였다.

5) 본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초안을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6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고, 유사한 응답을 초래하는 중복질문을 걸러 설문지의 구조와 내용을 보완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	246	50.3
	여	243	49.7
연 령	25세 - 34세	100	20.4
	35세 - 44세	100	20.4
	45세 - 54세	100	20.4
	55세 - 64세	100	20.4
	65세 - 74세	89	18.2
교육수준	중졸 이하	84	17.2
	고졸 이하	193	39.5
	대졸 이하	177	36.2
	대학원 이상	34	7.0
	무응답	1	0.2
가족의 연간 소득	1200만원 미만	49	11.0
	1200 - 2400만원 미만	102	20.9
	2400 - 3600만원 미만	134	27.4
	3600 - 4800만원 미만	98	20.0
	4800만원 이상	90	18.4
	무응답	16	3.3
결혼상태	초혼	455	93.0
	재혼	8	1.6
	별거/이혼 진행 중	10	2.0
	동거(사실혼)/기타	16	3.2
결혼기간	5년 이하	91	18.6
	6년 - 15년	108	22.1
	16년 - 30년	142	29.0
	31년 이상	140	28.6
	무응답	8	1.6

(2) 자기관

응답자의 자기관은 현(Hyun, 1995)이 개발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독립적 자기관은 타인과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지식,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타인과의 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2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예: “나는 내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 상호 의존적 자기관은 타인과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을 묘사한 17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예: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각 척도의 응답범위는 ‘1.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에서 ‘8.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8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척도점수는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된 자기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3, .82이었다.

### (3)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의 응답항목으로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가 주어졌다. 척도점수는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서술된 5개 항목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77이었다.<sup>6)</sup>

### (4) 의사소통의 명확성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송시내(1999)가 만든 부부의의사소통 척도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우자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개인의 생각, 느낌, 행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 8개가 선택되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내 입장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배우자에게 나의 소망이나 바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의사소통과 관련한 각 항목이 자신의 경우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 정말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척도점수는 의사소통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명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2이었다.

### (5) 관계적 안녕감

관계적 안녕감은 현(Hyun, 1995)의 관계안녕 척도(Relational Well-Being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관계적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척도에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다”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느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4점 척도(‘1. 거의 또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부터 ‘4. 거의 항상 또는 늘 그렇게 느꼈

6) 척도항목 8, ‘내 자신에 대해 좀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는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이 매우 낮아 내적일치도를 .73으로 떨어뜨림으로 척도점수 산출에서 제외시켰다. 이 문제는 관(Kwan) 등(1997)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어 그 항목을 제외시켰음이 보고되었다.

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척도점수는 측정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 (6) 심리적 안정

심리적 안정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California Q-Set(John, 1990)과 성격 5요인 척도(McCrae and Costa, 1990)를 참조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적 안정' 영역에 포함된 총 4개의 문항(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이 척도에 포함되었으며, 문항의 변안은 유태웅·김명언·이도형(199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항목으로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 매우 그렇다')가 주어졌으며, 척도점수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정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1이었다.

##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응답자들이 보고한 결혼만족도, 자기관 및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하였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인들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Analysis Moment of Structure)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제시된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다.<sup>7)</sup> 모수(parameter)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의 결과는 레이코브, 토머 그리고 네슬로드(Raykov, Tomer, and Nesselrode, 1991)가 제시한 지침을 따라 전반적 부합지수인 카이제곱치와 그 확률치, 기초부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및 잔여 변량-공변량 간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d Residual)를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모형이 현실자료에 잘 맞는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만큼 카이제곱치가 클 경우 ( $p < .05$  이하)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기초부합치(GFI) 지수는 표본크기가 200 이상에서 .90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며, .95 이상이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Kline, 1998). 조정부합치(AGFI)는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며, RMR 지수는 .05 이하일 때 잘 맞는 모델로 간주한다(이순목, 1990). 이상의 결혼만족과 관련된 경로 분석은 전체집단과 남녀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7) 공변량구조분석은 관찰변인들 사이의 변량-공변량 행렬을 분해하여 이론적 모형의 계수들을 산출하고, 일련의 종속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평가하여 독립변수들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반면 종래의 경로분석에서 미지수 추정방법의 제한 때문에 필요했던 잔여분변수의 무상관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이순목, 1990) 본 연구의 자료검증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 4. 분석결과

#### 1) 자기관과 결혼만족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응답자의 자기관과 결혼만족 관련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전체 집단과 남녀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상호 의존적 자기관이 독립적 자기관보다 높았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평균은 5.75(SD=0.73)로 8점 척도에서 6점 ‘어느 정도 그렇다’에 가까운 반면, 독립적 자기관은 평균이 5.17(SD=0.83)로 5점 ‘약간 그렇다’에 가까워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독립적 자기성향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자기관 점수는 두 가지 유형 모두 2점 ‘대부분 그렇지 않다’에서 8점 ‘전적으로 그렇다’ 사이로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이들이 지각하는 자기관의 개인차가 큼을 시사하였다. 각각의 자기관을 성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남성집단의 독립적 자기관이 여성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Ms=5.30, 5.04, SDs=0.79, 0.85 각각;  $t=3.62, p<.001$ ), 그러한 성차가 상호의존적 자기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Ms=5.73, 5.77, SDs=0.77, 0.70 각각;  $t=.648, p=.52$ ). 이는 한국인들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있어 성차가 없음을 보고한 김지경과 김명소(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남녀들의 자기관은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을 보여 자기관의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었으며, 남녀집단 모두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평균적으로 독립적 자기관보다 꽤 높게 나타나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자기관의 우세성을 시사하였다.

<표 2> 자기관과 결혼만족 관련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n=489)

변수	전체 및 성별		전체		남성		여성		t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독립적 자기관	5.17	0.83	5.30	0.79	5.04	0.85			3.62**
상호의존적 자기관	5.75	0.73	5.73	0.77	5.77	.070			0.65
자기존중감	2.86	0.40	2.87	0.41	2.85	0.40			0.77
의사소통의 명확성	2.80	0.50	2.84	0.49	2.76	0.51			1.71
심리적 안정	2.63	0.54	2.65	0.53	2.60	0.54			1.06
관계적 안녕감	2.70	0.57	2.69	0.56	2.70	0.58			-0.44
결혼만족도	4.84	1.30	5.19	1.10	4.48	1.40			6.18**

주: 남녀집단의 응답자 수는 각각 246과 243임.

\*  $p < .01$ , \*\*  $p < .001$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매개변수로 고려된 자기존중감, 의사소통의 명확성

및 심리적 안정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은 각각 2.86(SD=0.4), 2.80(SD=0.5), 2.61(SD=0.63)로 4점 척도의 3점('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에 가까웠으며, 지난 한 주간 응답자들이 느낀 관계적 안녕감의 평균은 2.70(SD=0.57)으로 4점 척도의 3점('자주 그렇게 느꼈다')에 가까웠다. 이러한 결과는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매우 유사하였으며, 매개변수들의 평균점수에 성차가 없었다.<sup>8)</sup> 요약하면, 응답자들이 보고한 자기존중감, 의사소통의 명확성, 심리적 안정, 그리고 관계적 안녕감의 수준은 성별에 상관없이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기혼자들은 평균적으로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전체집단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4.84(SD=1.30)로 7점 척도의 5점('어느 정도 만족')에 가까웠으나, 성별로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 집단의 만족도가 여성 집단의 만족도 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 $M_s=5.19, 4.48, SD_s=1.10, 1.40$  각각;  $t=6.179, p<.001$ ), 결혼만족의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남성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나, 여성 응답자들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4점 '보통'과 5점 '어느 정도 만족'의 중간을 점하고 있어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의 표준편차가 남성보다 커 여성 응답자들이 느끼는 결혼만족의 수준이 남성보다 다양함을 시사하였다.

## 2)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관련된 경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경로분석에 앞서 클라인(Kline, 1998)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방식(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서 전제하는 다변량정규분포의 가정에 부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다변량 첨도 및 특이 케이스들(outliers)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의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자료에 결측값이 없었으므로 분석에는 리스트 단위 공변량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로모델의 검증에는 외생변수간의 공변량과 내생변수인 매개변인들 중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 잔여분변수 그리고 관계적 안녕감과 의사소통 및 심리적 안정 잔여분변수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변량을 포함시켰다.

8) 독립적 자기관은 평균적으로 남녀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이 자기관의 매개변수로 고려된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그러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 세 변수에 의해 측정된 개념들이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자기관과 결혼만족 관련 변수들의 상관 계수(n=489)

변수	독립적 자기관	상호의존적 자기관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심리적 안정	관계 안녕	결혼만족도
독립적 자기관	-	.23**	.36**	.25**	.10	.28**	-.01
상호의존적 자기관	.27**	-	.02	.07	.12*	.19**	.14*
자기존중감	.31**	.08	-	.26**	.30**	.37**	.20*
의사소통	.27**	.07	.28**	-	.06	.31**	.43*
심리적 안정	.18**	.13**	.38**	.19**	-	.24**	.21*
관계 안녕	.21**	.21**	.40**	.26**	.20**	-	.23*
결혼만족도	.11*	.19**	.26**	.42**	.22**	.26**	-

주: 상관계수는 대각 점선의 좌측에 전체집단 그리고 우측에 남성\여성 집단 순으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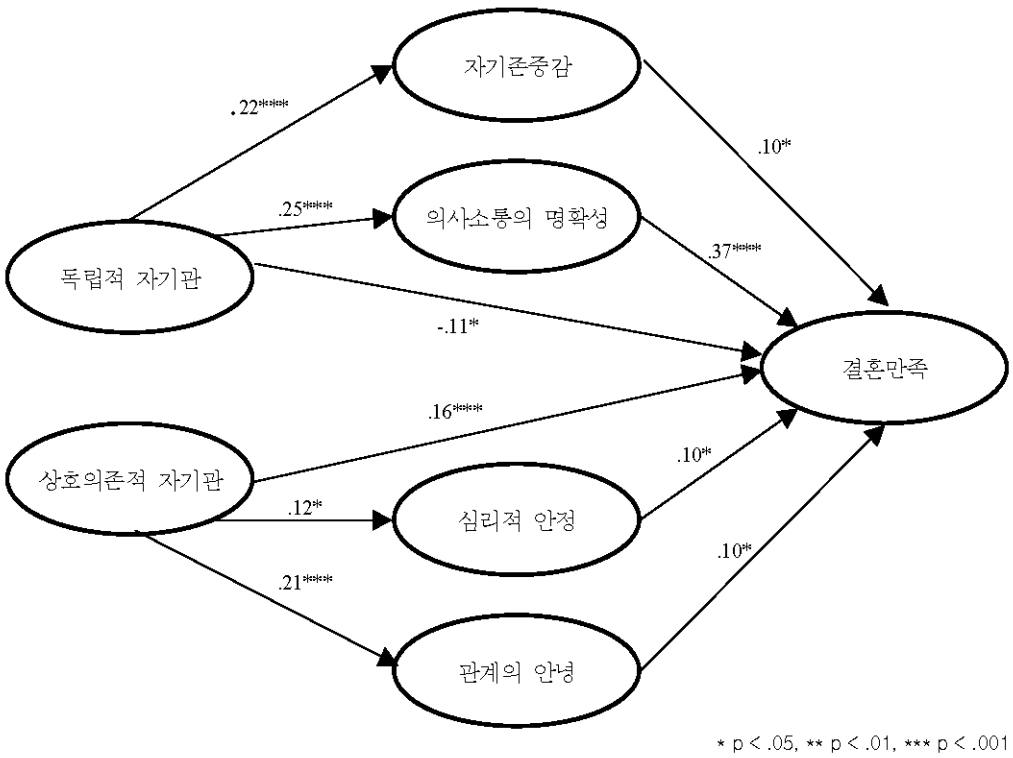
\* p < .05    \*\* p < .01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표 3>에 전체 집단과 남녀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3>의 대각점선을 중심으로 좌측에 제시한 전체집단의 상관 계수들을 보면, 예측대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 $r=.19, p<.01$ ), 독립적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 $r=.11, p<.05$ )은 매개변수를 통제했을 때 미미한 부적상관( $r=-.05, p=.26$ )을 드러냈다.<sup>9)</sup> 독립적 자기관은 매개변수로 제안된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의 명확성( $r_s=.31, .27, ps<.01$  각각)과 그리고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매개변수로 제안된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 $r_s=.13, .21, ps<.01$  각각)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 매개변수들과 결혼만족의 상관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r_s=.22\sim.42, ps<.01$ ). 요컨대, 경로분석에 포함된 관련변수들 간의 정적·부적 상관의 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로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형설정 시 예측하지 못한 상관관계도 몇 가지 발견되었다. 우선, 선행연구들(예: Hyun, 1995)은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 두 자기관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r=.27, p<.01$ ). 또한, 상호의존적 자기관과만 정적관계를 예측했던 관계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정감은 독립적 자기관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_s=.21, .15, ps<.01$  각각). 남녀 하위집단의 경우도 <표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범위나 유의도에 있어 전체집단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sup>10)</sup>

9) 부분상관계수는 지면의 제약으로 <표 3>에 제시하지 않았음.

10) 남녀하위집단의 상관계수들 중 전체집단과 차이를 보인 것을 살펴보면, 남성집단에서는 상호의존





<그림 2> 자기관 및 매개 변수들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분석(전체 표본)

자기관과 자기관의 매개변인으로 포함된 변수들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화살표 위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공변량구조분석에서 얻은 표준화 회귀계수로 모든 경로계수는  $p < .05$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예측대로, 독립적 자기관은 자기존중감 및 명확한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beta_s = .22, .25$  각각),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을 증가시켰으며( $\beta_s = .12, .21$  각각), 이 두 유형의 자기관에 의해 예측된 자기존중감, 의사소통의 명확성,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은 각각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beta_s = .10, .37, .10, .10$  각각). 한편, 각각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예측대로 상반되었다.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beta = -.11$ )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증가시켰다( $\beta = .16$ ). 요컨대, 경로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제시된 독립 및 종속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자료에 의해서도 모두 예측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어 연구 가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적 자기관과 자기존중감 간에 정적인 상관( $r = .13, p < .05$ )이 발견되었으며, 여성집단에서는 독립적 자기관과 결혼만족 및 정서적 안정성 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_s = -.01, .10, p_s = .94, .08$ ).

전체집단에 대한 경로모형의 부합도 검증결과는 카이제곱( $\chi^2$ ) 값이 46.92(df=6, n=489),  $p < .001$ 로 측정변수들 간에 공변량이 존재하여 연구모형이 실제자료에 맞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기초 부합치(GFI)는 .97로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는 .95수준보다 높았으며, 조정부합치(AGFI)는 .88, RMR은 .03으로 검증된 경로모형의 부합도가 채택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sup>11)</sup> 실제자료가 시사하는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련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분석결과에 나타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고하여 독립적 자기관이 심리적 안녕 및 관계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  $\chi^2$ (df=3, n=489)=10.42,  $p < .01$ , GFI=.99, AGFI=.94, RMR=.01로 부합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들은 독립적 자기관이 심리적 안녕과 관계적 안녕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준 것 외에 원래 모형의 경로계수들과 유의도나 관계의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수정모형은 독립적 자기관이 심리적 안녕과 관계적 안녕감을 통해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함을 보여주었으나, 그러한 간접효과의 크기는 각각 .015와 .017로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수정을 통해 드러난 독립적 자기관의 유의하지 않은 간접효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사회과학에서 중시하는 간명의 원칙(principle of parsimony)을 고려할 때(이순복, 1990), 원래의 경로모형이 수정모형 보다 간명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sup>12)</sup>

### 3)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관련된 경로와 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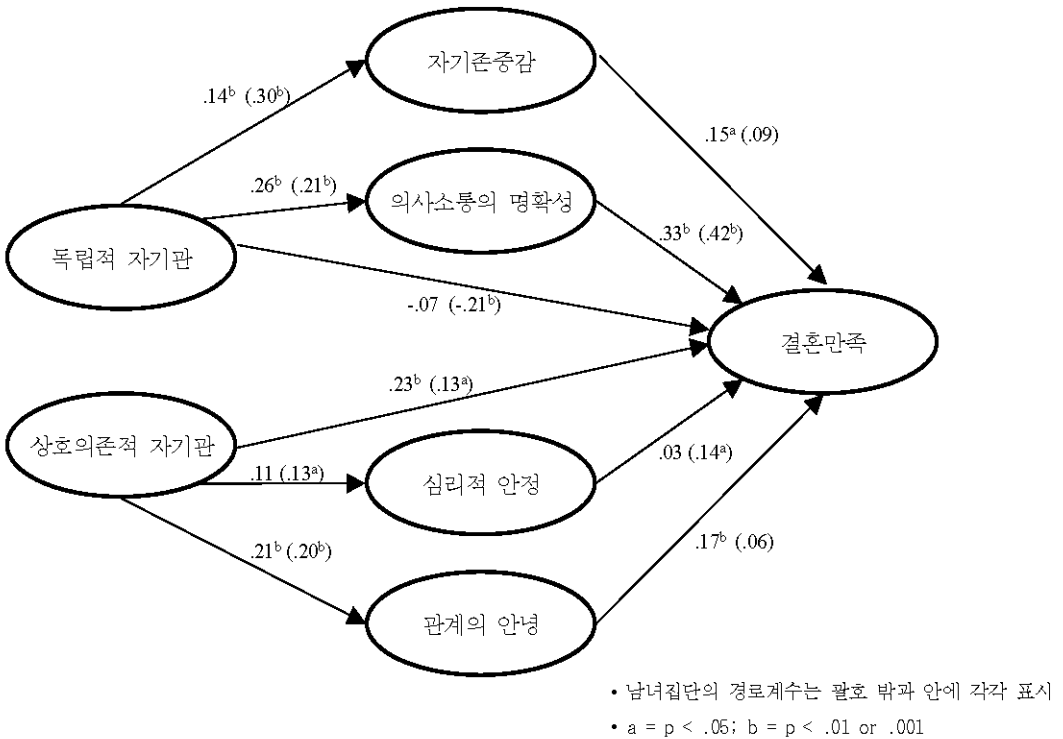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분석의 결과를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남성집단의 경로계수는 괄호 밖에 표시하였고, 여성집단의 경로계수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경로모형에 포함된 독립 및 종속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예측된 정적·부적 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 간에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성 집단의 경우, 예측대로, 독립적 자기관은 자기존중감과 배우자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증가시켰으며( $\beta_s = .14, .26$ ,  $ps < .01, .001$  각각), 그러한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은 결혼만족에 각각

11) 이외에 공변량구조모형의 부합지수로 검토되는 표준부합치(NFI: Normed Fit Index)와 비교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도 각각 .90, .91로 모형 채택의 기준인 .90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카이제곱치는 표본 크기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표본이 크면 모델과 현실자료의 근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차이'라는 신호를 보내 이에 근거한 부합도 평가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순복, 1990; Kline, 1998).

12) 결혼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즉 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건강상태 등을 통제하고도 자기관과 결혼만족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직접 및 간접관계가 지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바론과 케니(1986)의 방식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투입하고, 단계별로 자기관 변수들과 이들의 중재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이 두 자기관의 유의미한 효과는 부분적으로 매개변인들에 의해 중재되었으며, 각각의 변수는 경로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회귀분석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경로모형을 지지하였으며, 결혼만족에 대해 34%의 설명력을 보였다.

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beta_s=.15, .33, ps< .05, .001$  각각). 또한, 남성 응답자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관계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beta=.21, p< .001$ ), 그러한 관계적 안녕감은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beta=.17, p< .001$ ). 하지만, 이 유형의 자기관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와 심리적 안정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_s=.11, .06, ps=.07, .23$  각각). 한편,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예측대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_s=-.07, .23, p=.22, p< .001$  각각). 즉, 남성 응답자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으나, 이들에게서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 자기관 및 매개 변수들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경로분석(남녀 표본)

여성 집단의 경우, 예측대로, 독립적 자기관은 자기존중감과 배우자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beta_s=.30, .21, ps< .001$  각각),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감을 증가시켰으나( $\beta_s=.13, .20, ps< .05, .01$  각각), 이들 중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심리적 안정만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beta=.42, .14, ps< .001, .05$  각각). 한편, 각각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예측대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의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beta=-.21, p< .001$ )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증가시켰다( $\beta=.13, p< .05$ ).

남녀 집단의 경로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두 집단 모두에서 독립적 자기관은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이중 의사소통의 명확성만 남녀의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자기존중감은 남성집단에서만 결혼만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경우,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관계적 안녕감을 통해 그리고 여성의 그러한 자기관은 심리적 안정을 통해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한편,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보면,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여성 집단에서만 발견되었으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직접 효과는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이 성을 구분한 하위집단의 자료에도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위 집단 간에 특정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전체집단의 공변량구조 분석과 똑 같은 평가절차를 남녀 하위 집단에 시행하였다. 부합도 검정결과, 카이제곱( $\chi^2$ ) 값이 61.92(df=12, n=489),  $p < .001$ 로 측정변수들 간에 공변량이 존재하여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 맞지 않음을 시사하였으나, 기초부합치(GFI)는 .97로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는 .95수준보다 높았으며, RMR은 .03으로 양호하였다. 하지만, 조정부합치(AGFI)는 .84로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 보다 낮았다.<sup>13)</sup> 따라서 전체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자기관이 심리적 안녕 및 관계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chi^2$ (df=6, n=489)=18.81,  $p < .01$ 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GFI=.99, AGFI=.90, 그리고 RMR=.01로 양호한 부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들은 독립적 자기관이 남성집단의 심리적 안녕과 여성집단의 관계적 안녕감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준 것 이외에 원래 모형의 경로계수들과 유의도나 관계의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14)</sup> 앞서 보고하였듯이,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여성의 관계적 안녕감은 결혼만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독립적 자기관이 이들을 통해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7과 .015로 미미하여, 수정모형 보다 간명한 원래의 경로모형이 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 4) 자기관과 자기관의 매개변인들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분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 및 각 자기관의 매개변인들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의 효과분해 결과는 괄호 밖에 표시하였으며, 남녀 집단의 결과는 괄호 안에 각각 표시하였다. 각각의 자기관이 매개변인을 통해 결혼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도는 바론과 케니(Baron and Kenny, 1986)가 제시한 공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총 효과의 유의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Kline, 1998).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13) 그 외에 공변량구조모형의 부합지수로 검토되는 표준부합치(NFI)와 비교부합치(CFI)는 각각 .89, .90으로 모형채택의 기준인 .90과 같거나 근접하였다.

14) 카이제곱치가 영가설을 수용할 때까지 모형수정을 시도하여도 경로계수들의 유의도나 방향은 1차 수정모형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어, 경로분석이 목적인 본 연구에서 그러한 모형 수정은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상대적 영향력을 총 효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기관과 매개변인들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분해\*

잠재적 요인변수	내생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심리안정	관계안녕	결혼만족
<u>독립적 자기관</u>					
직접효과	.22 <sup>b</sup> (.14 <sup>b</sup> /.30 <sup>b</sup> )	.25 <sup>b</sup> (.26 <sup>b</sup> /.21 <sup>b</sup> )	—	—	-.11 <sup>a</sup> (-.07/- .21 <sup>b</sup> )
간접효과 via 자존감	—	—	—	—	.02 <sup>a</sup> (.02/.03)
간접효과 via 의사소통	—	—	—	—	.09 <sup>b</sup> (.09 <sup>b</sup> /.09 <sup>b</sup> )
총효과	.22 <sup>b</sup> (.14 <sup>b</sup> /.30 <sup>b</sup> )	.25 <sup>b</sup> (.26 <sup>b</sup> /.21 <sup>b</sup> )	—	—	.00(04/- .03)
<u>상호의존적 자기관</u>					
직접효과	—	—	.12 <sup>a</sup> (.11/.13 <sup>a</sup> )	.21 <sup>b</sup> (.21 <sup>b</sup> /.20 <sup>b</sup> )	.16 <sup>b</sup> (.23 <sup>b</sup> /.13 <sup>a</sup> )
간접효과 via 심리안정	—	—	—	—	.01(.00/.02)
간접효과 via 관계안녕	—	—	—	—	.02 <sup>a</sup> (.04 <sup>a</sup> /.01)
총효과	—	—	.12 <sup>a</sup> (.11/.13 <sup>a</sup> )	.21 <sup>b</sup> (.21 <sup>b</sup> /.20 <sup>b</sup> )	.19 <sup>b</sup> (.27 <sup>b</sup> /.16 <sup>a</sup> )
<u>자기존중감</u>					
직접효과	—	—	—	—	.10 <sup>a</sup> (.15 <sup>a</sup> /.09)
<u>의사소통의 명확성</u>					
직접효과	—	—	—	—	.37 <sup>b</sup> (.33 <sup>b</sup> /.42 <sup>b</sup> )
<u>심리적 안정</u>					
직접효과	—	—	—	—	.10 <sup>a</sup> (.03/.14 <sup>a</sup> )
<u>관계의 안녕</u>					
직접효과	—	—	—	—	.10 <sup>a</sup> (.17 <sup>a</sup> /.06)

<sup>a</sup>p < .05; <sup>b</sup>p < .01

\* 표에 제시된 효과는 전체집단 (남성집단/여성집단) 순으로 표시.

전체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는 의사소통의 명확성(총 효과=.37)이었으며, 그 다음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총 효과=.19)이었다.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감을 통해 결혼만족에 긍정적 기여를 하여 총 효과가 높았으나, 관계적 안녕감을 통한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만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머지 변수들, 즉 자기존중감,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의 총 효과는 각각 .10으로 의사소통의 명확성이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끝으로,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 두 효과의 방향이 상반되어 영향력을 상쇄시키므로 총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자기관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을 감소시키지만,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도모하여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하므로 결혼만족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의 역할이 복잡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의사소통을 통한 독립적 자기관의 간접효과(09)는 다른 매개변수들의 총 효과(1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목되었다.

남녀 집단의 총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집단과 마찬가지로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는 의사소통의 명확성(총효과=.33, .42 각각)이었으며, 그 다음이 상호의존적 자기관(총효과=.27, .16 각각)이었다. 의사소통의 명확성이 여성 집단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42)는 남녀 및 전체 집단의 결혼만족 관련 변수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중 가장 컸다.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는 남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관계적 안녕감을 통한 간접효과(.04)도 남성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제외한 매개변수들이 남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자기존중감(.17)과 관계적 안녕감(.15)은 남성의 결혼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심리적 안정(.14)은 여성의 결혼만족에 그러한 효과를 보였다. 끝으로,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직접 및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상쇄되어 미미하였다. 하지만, 여성 집단의 경우, 독립적 자기관의 직접효과(-.21)가 유의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명확성 다음으로 컸으며,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의사소통에 의해 증대된 독립적 자기관의 간접효과가 커서 주목되었다.

이상의 효과분해 결과를 정리하면,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에서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는 매개변인으로 고려된 의사소통의 명확성이었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도 직접경로와 매개변수들을 통한 간접 경로에 의해 결혼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 중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총 효과는 의사소통의 명확성 다음으로 컸으며, 이 효과는 부분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감에 의해 증대되었으나, 관계적 안녕감을 통한 간접효과만 전체 집단과 남성 집단에서 유의함을 보였다. 전체 및 남녀 하위집단에서 독립적 자기관의 총 효과는 직접 및 간접효과의 상반된 영향으로 없거나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는 여성 집단의 경우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총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적 자기관이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통해 결혼만족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였으며, 다른 간접효과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나 그 영향력이 큼을 시사하였다.

## 5. 논 의

###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에게 공존하는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관련된 경로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여 현대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자기관의 유형과 역할을 밝히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독립적 자기관보다 높게 보고하였으며, 이들의 자기관 점수는 두 가지 유형 모두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한국의 기혼남녀들이 지각하

는 자기관의 강도가 매우 다양함을 시사하였다. 독립적 자기관의 경우, 남성집단의 평균점수가 여성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에서는 그러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아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자기관이 전반적으로 우세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결혼만족 연구에서 간과해 온 자기관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과 기혼남녀가 갖고 있는 자기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점을 고려한 결혼만족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수로 고려된 자기존중감, 의사소통의 명확성,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 집단의 응답 평균은 4점 척도의 3점(‘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 수준’)에 가까웠으며, 성차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편이고, 심리적으로나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만족한 수준을 보였으나,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만족의 성차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개인적 안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다른 영역들, 즉, 자존감, 심리적 안정, 관계의 안녕에서는 평균적으로 남녀가 유사한 수준의 안녕감을 보여주어, 결혼만족도에만 근거하여 기혼여성의 안녕감을 기혼남성보다 낮게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측대로, 이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하거나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전체집단의 자료는 독립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에 의해 중재되며,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그러한 영향은 심리적 안정과 관계적 안녕감에 의해 중재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반되며,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의 증가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은 심리적 안정을 통한 간접효과를 제외하고 전체 집단의 자료에 의해 모두 지지를 받았으며, 검증된 경로모형의 부합도도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여 연구 결과가 고무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에 있어 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독립적 자기관의 상반된 직·간접 효과가 암시하듯이, 특정 자기관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순기능적인 면과 역기능적인 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 하위집단의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나 간접효과들 간에 성차를 보여, 결혼만족에 있어 자기관의 역할이 남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혼남성들은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있어 평균적으로 기혼여성과 유사하였으며,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러한 자기관이 남성들의 결혼만족에 직접 및 간접으로 기여하는 바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로 보인 반면, 남성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그러한 직접 효과와 더불어 관계적 안녕감을 통해서도 결혼만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독립적 자기관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기혼남성들보다 낮았지만 표준편차가 커 남성들보다 개인차가 큼을 보여주었으며,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러한 자기관이 여성들의 결혼만족에 직접 및 간접으로 기여하는 바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주었다. 남

성의 독립적 자기관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를 주로 보인 반면, 여성의 독립적 자기관은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직접효과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의 결혼만족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의 역할이 복잡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관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접근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에 근거하여 결혼만족의 성차를 설명하는 서구의 이론이나 연구들(Thompson and Walker, 1989; Veroff et al., 1981)이 밝혀내지 못한 것이어서 한국인의 자기 성향이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강한 남성들이 보인 높은 관계적 안녕감과 결혼만족도는 이들의 가사노동 참여 가능성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관계적 자기정체감은 성별에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참여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Garrido and Acitelli, 1999), 가사참여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는데(윤명희·임정빈, 1985), 심슨과 잉글랜드(Simpson and England, 1981)는 부부가 가사 및 일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경우 상호이해와 동료감이 증진되어 정신건강에 좋으며, 부모자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영역에 대한 남성의 관심과 참여를 격려하며, 그러한 참여는 기혼 남성이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이들의 관계적 안녕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여성들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명확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결혼만족을 경험하지만, 이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낮았다. 따라서 그러한 기혼여성들이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및 결혼생활의 어떤 측면에서 불만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후속 작업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남녀의 결혼만족 이슈를 다룰 때 내담자의 자기인식과 해석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그와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시도는 기혼자인 내담자의 자기통찰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리라 본다.

자기관과 자기관의 매개변인들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해한 결과, 전체집단 및 남녀 하위집단 모두에서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는 의사소통의 명확성이었다. 이는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위해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의 실천을 강조해온 선행연구 및 가족학자들(예: 송시내, 1999; 이정은·이영호, 2000; 정은미·김명자, 1996; Epstein et al., 1993)을 지지하는 결과로 의사소통의 “명확성”이 결혼만족의 강력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로분석의 결과는 독립적 자기관이 그러한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가 모든 집단에서 일관성 있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자기관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후속연구도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명확성 외에 자기관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변수로 자기존중감, 심리적 안정 및 관계적 안녕감을 고려하였으나, 결혼만족의 주 예측요인으로 보고되는 성격 특성이나 가치관 또는 생활태도도 자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관의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각각의 자기관이 결혼만족의 증가나 감소에 기여하는 또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 증진에 유용한 통찰을 줄 수 있어 의의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기혼자나 부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을 평가하거나 촉진하고자 할 때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현대 한국 기혼남녀들의 자기관이 독립과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인차가 큼을 보여주어 기혼자의 자기관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 임상접근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상가들은 기혼남녀의 자기특성을 성역할의 사회화 경험에 비추어 추정하거나 정형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며 이해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을수록 남녀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임을 고려하여, 기혼자나 부부의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삶의 특성에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 경험이나 사회봉사 및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의 명확성이 결혼만족의 강력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혼남녀들에게 자신의 생각, 느낌, 의견, 바람 등을 배우자에게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자들이 그러한 대화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결혼만족 증진 프로그램이나 부부갈등 예방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관이 여성의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를 보였으나,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간접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매우 커, 상호의존적 자기관뿐만 아니라 독립적 자기관도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은 남녀 응답자들의 자기존중감과 관계적 안녕감에도 각각 정적인 기여를 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안녕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한다. 앞으로 현장과 학계가 협조하여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밝히고, 각 자기관의 긍정적 측면을 양성하는 동시에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 방안의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도 매우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자기관의 유형과 역할을 규명하는 첫 번째 시도로 현대 한국인의 결혼만족에 있어 자기관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가치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제한이 있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자기관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영향에 대한 추론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시도된 경로분석은 독립 및 종속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첫 단계의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Kline, 1998), 이 연구에서 시사된 자기관, 매개변인들 및 결혼만족의 관계구조는 인과관계의 규명에 유용한 실험연구나 다른 연구방법들을 통해 검증되고, 보다 명확히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기관이 결혼만족의 증가나 감소에 기여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두 변수 간의 함수적 관계(functional relationship)를 의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들로 성별 및 연령집단의 고른 분포를 위해 비확률 할당표집을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자기관의 유형과 역할이 기혼자의 사회경제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결혼만족에 있어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개별적 역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 두 유형의 자기관은 개인 내에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자기관의 통합 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나 기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생활의 측면과 결혼만족의 근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결혼생활의 질은 부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경우 결정되므로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기혼자 개인의 자기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기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부부들이 보여주는 자기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부부간의 자기관 일치가 결혼만족에 기여하는지를 살피는 연구도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끝으로, 이 연구는 개인의 자기관이나 결혼만족과 같은 사회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함을 보여주어 서구의 이론에 근거한 지식 개발의 한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임상사회복지 및 사회과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국적 임상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보다 많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지경·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송시내. 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오경희. 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01-220.
- 유태용·김명연·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85-102.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윤명희·임정빈. 1985. "도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45-59.
- 이동원·최선희. 1997. "부부평등과 결혼만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9: 149-183. 이화여자대학교.
- 이미숙. 1997.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영미·김정희. 1997. "성역할 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51-365.
- 이정은·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정은미·김명자. 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47-64.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궁호. 2003.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229-283.
- 조성욱·신효식. 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6): 177-200.
- 조은경·정혜정. 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5.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5.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1.
- 통계청. 2004. “2003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현경자·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결혼만족 근원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사회복지학』 49(2): 225-263.
- 홍숙선·조성호. 2003.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7: 101-112.
- Acitelli, L., S. Rogers, and C. Knee. 1999. “The Role of Identity in the Link between Relationship Think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5): 591-618.
- Baron, R., and D.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pp. 680-740.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 edited by Gilbert, D., S. Fiske, and G. Lindzey (4th ed). Boston, MA: McGraw Hill.
- Campbell, A., P. Converse, and W.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Sage.
- Caughlin, J., T. Huston, and R. Houts.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26-336.
- Clements, M., A. Cordova, H. Markman, and J. Laurence. 1997. “The Erosion of Marital Satisfaction over Time and How to Prevent it”. pp. 335-355. in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edited by R. Stenberg and M. Hojjat. New York: Guilford Press.
- Cooper, K., L. Chassin, and A. Zeiss. 1993. “The Relationship of Sex-role Self- concept and Sex-role Attitudes to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Personal Adjustment of Dual-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ex Roles* 12(1-2): 227-241.
- Cross, S., and L. Madson.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 Bulletin* 122(1): 5-37.
- Deci, E., and R. Ryan. 199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iener, E., and E. Suh.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The MIT Press.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pstein, N., D. Bishop, C. Ryan, I. Miller, & G. Keitner. 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pp. 139-160. in *Normal Family Processes*, edited by F. Walsh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28(5): 404-416.
- Fiske, A., S. Kitayama, H. Markus, and R. Nisbett. 1998.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pp. 915-981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 edited by Gilbert, D., S. Fiske, and G. Lindzey. Boston, MA: McGraw Hill.
- Fitzpatrick, M. 1988. "Approaches to Marital Interaction". in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edited by Noller, P. and M. Fitzpatrick.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 Garrido, E., and L. Acitelli. 1999. "Relational Ident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5): 619-637.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on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50.
- Heine, S., D. Lehman, H. Markus, and S. Kitayama.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4): 766-794.
- Hiller, D. V., and W. W. Philliber. 1989. *Equal Partners: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Hyun, K. J. 2001. "Is an Independent Self a Requisite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sian Americans?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3/4): 178-193.
- John, O. P. 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 pp. 66-100. in *Handbook of Personality :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L. A. Pervin. New York: Guilford Press.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wan, V., M. Bond, and T. Singelis.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 1038-1051.

- Lippes, T. 1999. "Mutuality in Marriage: The Self-Esteem Connection. A Self-in Relation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20.
- Markus, H., and E. Wurf.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and S. Kitayama.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sra, G., and R. Giri. 1995. "Is Indian Self Predominantly Interdependent?"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13(1): 16-29.
- Raykov, T., A. Tomer, and J. Nesselroade. 1991.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 Psychology and Aging: Some Proposed Guidelines". *Psychology and Aging* 6(4): 499-503.
- Roach, A., D. Frazier, and R. Bowden.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and B. Singer.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acco, W., and V. Phares. 2001. "Partner Appraisal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4): 504-513.
- Schafer, R., K. Wickrama, and P. Keith. 1996. "Self-Concept Disconfirm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2): 167-177.
- Schumm, W., L. Paff-Bergen, R. Hatch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impson, I., and P. England. 1981. "Conjugal Work Roles and Marital Solidar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 180-204.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tevens, D., G. Kiger, and P. Riley. 2001. "Working Hard and Hardly Working: Domestic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2): 514-526.
- Stocker, C., K. Ahmed, and M. Stall.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Social Development* 6(3): 373-385.
- Thompson, L., and A. Walker. 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Veroff, J., E. Douvan, and R. A. Kulka. 1981. *The Inner American: A Self-Portrait from 1957 to 1976*. New York: Basic Books.

## The Role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Hyun, Kyoung-Ja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self-construal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and explored how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contribute to or undermine marital satisfaction. Data were drawn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489 married people (aged 25-75)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Path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rogram, and a goodness of fit of the proposed path model was evaluated. As expected, the positive impact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marital satisfaction was mediated by self-esteem and clarity of communication, and that of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on marital satisfaction was mediated by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 sense of relational well-being. The direct effects of these two types of self-construal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opposite. As predicted, independent self-construal decreased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creased it. All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the indirect effect of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s mediated by psychological stability. The goodness of fit indexes of the path model indicated that the model was acceptable. However, the results of separate path analyses for men and women showed that some of the effects of self-construals on marital satisfaction differed by gender.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 Marital satisfaction, Self,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esteem, Communication clarity, Relational well-being

[접수일 2004. 9. 1. 게재확정일 2004. 11. 1.]